

굿피플노인전문요양원 소식

7월 긍정의 힘을 주는 성경 속의 한 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 로마서 8장 18절 말씀

《 안 내 말 씀 》

2018년 하반기 급여제공계획 송부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상태에 따라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검사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굿피플노인전문요양원도 2018년 상반기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 제공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하반기 급여제공계획을 재수립 및 어르신과 보호자님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7월 소식지와 같이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음식물 반입 및 제공에 대한 협조 당부 말씀

어르신을 방문하신 분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어르신께 불편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는 유통기한 미표기 제품을 제공 또는 보관할 수 없어 음식물 반입을 금합니다. 더욱이 날씨가 무더워짐에 따라 식중독과 같은 전염성질환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어르신 각각의 신체기능 및 인지저하로 인하여 소화력 부족, 식사량 조절 능력이 떨어지시므로 면회 시 보호자님과 함께 드실 1회 분량의 음식물 이외의 모든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특히 떡, 방울토마토, 포도 등과 같이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는 음식물은 반입을 절대 금지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실 개인의류 관리 협조요청

날씨가 무더워짐에 따라 어르신의 계절에 맞는 옷을 교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맞는 일상복과 청결을 위한 속옷을 보호자님 내방 및 면회 시 교환 부탁드립니다, 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호자 참여프로그램 생신잔치

매월 진행되는 어르신 생신잔치는 보호자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보호자님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월 19일 오후 3시 진행)

6월에 진행된 행사

6월 7일 <2018 지방선거 거소투표>

6월 16, 29일 <2018 상반기 간담회>



지난 7일에 시설 안에서 어르신들의 전국동시 지방선거 거소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좋은 국회의원 및 교육감 등이 당선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께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순서대로 질서를 잘 지키시며 안전하게 거소투표를 잘 마쳤습니다.

16일과 29일 2차례로 나눠 어르신을 더욱더 잘 모시고 기관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시설 내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8년 상반기 보호자 및 어르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르신, 보호자님, 기관이 협조하여 서로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 19~20일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19~20일에는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권리와 노인학대에 대한 유형과 예방 지침에 대하여 전 직원과 어르신께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 28일 <어르신 생신잔치>



지난 28일에는 6월에 생신을 맞으신 4명의 어르신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감사예배와 축하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성을 다해 마련한 생신선물과 카드를 드리며 어르신들을 축복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구분	간호팀	사무행정팀	복지사업팀	영양지원팀	재활관리팀
담당자	박미옥 팀장	옥재옥 팀장	김미선 팀장	이남희 팀장	이재석 팀장
번호	934-5750	934-5722	934-5705	934-5730	934-5712

※ 문의사항이 있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주요행사 안내

일시	내용	시간 · 장소
7월 01일 일요일	어르신 이·미용 (주사랑선교팀)	14:00~16:00 / 프로그램실
7월 03일 목요일	CS교육 (직원진절교육)	08:20~09:20 / 지하 대성전
7월 19일 목요일	어르신 생신잔치	15:00~16:00 / 1층 사랑홀

※ 행사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작**’이란 단어는 아름다운 말이다.

한 해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 작게는 또 하루의 시작,
시작이란 단어에는 무한한 희망이 담겨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새 달력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주고 있다.

나는 아직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를
바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한

나는 언제나 **청춘**일 수 있다.

-이강춘의 《쌍무지개 뜨는 마을》 중에서-

